

# CAGLIERO 11

살레시오 선교 활성화를 위한 회보지



**사** 랑하는 살레시오 선교사들과 선교를 도와주는 친구 여러분들에게!

선교사였던 돈 보스코: 몇 차례만 이태리 밖으로 여행을 한 것을 포함해서 전 생애를 유럽에서 만 사셨지만, 그분의 마음은 항상 선교에 활짝 열려있었습니다. 2011년 4월은 돈 보스코가 선교에 대한 마지막 꿈을 꾸던 지 125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는 바르첼로나에서 꾸는 다섯 번째의 꿈이고 이 예언은 아직도 완전히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에티오피아로부터 강벨라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라고스까지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많은 살레시안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돈 보스코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Vedran Clement*  
선교평의원.  
클레멘트 바츠라브 신부.



## 제16회 선교사들의 평생양성 교육과정

살레시오 선교 사무국에서 주관하는, 선교사들을 위한 평생양성 교육과정이 2011년 9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로마의 살레시오 대학에서 실시됩니다.

이 과정은 선교 경험이 있는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8시 45분부터 13시까지)의 수업과 개인 성찰, 나눔, 기도 체험, 단체나 기관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들의 영적 성장과 선교활동의 심화를 돕고자 합니다.

이과정의 두 번째 주간(9월 26일-10월1일)에는 특별히 모든 참석자들이 함께 기거하면서 선교영성을 주제로 하는 피정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주간(12월 2-8일)은 성서와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를 심화하기위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갈 것입니다. 물론 다른 순례나 방문들도 과정 중에 이루어 질 것입니다.

살레시오 대학과 다른 기관들에 있는 여러 나라의 교수님들이 이들과 대화하고 경험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과정의 원장은 살레시오회원인 안토니오 에스쿠데로 신부입니다.

이과정은 이태리어로 진행되기에 참가를 원하는 **살레시오회원** 중 이태리어에 능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로마의 단테 알리기에리 학원에서 **7월1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되는 언어코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살레시오 선교사들은 살레시오회의 테스타치오 공동체에 머물게 됩니다.

살레시오 회원인 참석자들은 선교사무국의 블라치데 카라바 신부에게 연락바랍니다. **참가 신청서**는 이 신부님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선교 평의원인 클레멘트 신부님이 해당 관구장들과 협의하여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참석자들은 대학의 공동체에서 연학중인 살레시안들과 함께 지내게 될 것입니다.

**갈리에로 11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부활 축하" 인사를 보냅니다!**

### 아메리카 대륙을 위한 선교사를 찾고 있습니다.

국가 - 관구	필요한 언어	선교지의 환경, 선교사에게 필요한 자질
쿠바 - ANT	스페인어	적은 회원, 공산국가, 본당 - 청소년 센터
파타고니아 - ARS	스페인어	살레시오 첫 선교지, 적은 사목자, 시골 선교지, 인디언 부족
아마존 - BMA	포르투갈어, 부족언어	인디언 사이의 선교, 야생 아마존 기후
아마존 동북부 - BRE	포르투갈어	브라질의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살 회원
과테말라	스페인어, 부족언어	인디언 대상 선교, 1995년부터 살레시오 대리구, 주교와 한명의 회원; 산 페트로데 카르차 근처의 일타 베라파즈 지역 선교
엘 페텐 대리구 - CAM	스페인어, 부족언어	1893년부터 살레시오 대리구, 적은 회원, 아수아르 - 누아르; 안디나 지역(코르데넬라스)의 케추아 족 사이의 선교
멘데즈 대리구 - ECU	스페인어, 부족언어	1964년부터 수도회에 위탁, 적고 늙은 회원, 여러 다른 부족을 위한 사목
쁘레라뚜라 믹세스 - MEM	스페인어, 부족언어	1964년부터 수도회에 위탁, 적고 늙은 회원, 여러 다른 부족을 위한 사목
차코 대리구 - PAR	스페인어, 과라니어	파라과이 차코 대리구, 적고 연로한 회원, 새로운 선교지를 시작 중
뿌갈라 대리구 - PER	스페인어, 부족언어	2009년부터 대리구, 적은 선교사, 여러 다른 부족; (케쿠아) 발레 사그라도 선교지; (산 로렌조) 유리마구아스 선교지
우루과이 - URU	스페인어	라틴아메리카의 세속화된 나라, 청소년 복음 선교
아마존 대리구 - VEN	스페인어, 부족언어	아마존 선교 - 살레시오에 맡겨진 뷔에르토 아야쿠코, 적은 회원, 야노마미와 다른 인디언들

## 살레시오 선교사들에게 물려받은 카리스마를 나누고 싶습니다.



베네수엘라 사람인 내가 중동의 선교사라고 하면 사람들은 나의 선택이 ‘옳지 못했다’ 혹은 ‘현명하지 못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에도 할 일이 태산이고, 더구나 아랍어 같은 어려운 언어와 완전히 다른 문화를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 대신 다른 선교사가 내가 떠난 나의 나라에 와서 스페인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우리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보다는, 내가 그냥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선교사가 되고 싶었을까요? 솔직하고 신중한 식별 끝에 하느님께서 친교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베네수엘라 교회와 관구에도 많은 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가난한 가운데서도 나눌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교사가 중동에서 현존함으로 중동의 관구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베네수엘라 관구와 나의 가족, 친구들이 선교사가 선물이라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성, 양성, 카리스마,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음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백배의 보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그분의 자비로우심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의 선교사 생활의 시작은 중동에서 실습으로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힘들고 정말 어려운 아랍어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린 아이가 되었고 무용지물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의사소통을 하고 싶은 커다란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공동체와 오라토리오에서 어울리고 함께하기 위해 수화, 미소, 그림, 틀린 말, 엉뚱한 질문 등을 사용했습니다.

실습과 신학과정의 끝나고 참석한, (로마의 선교사무국에서 주관하는) “새로운 선교사들을 위한 교육”이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학과 교회론 그리고 나의 선교 선택을 위한 카리스마 등을 심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경험을 재평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미래에 내가 주의해야 할 것들을 알게 되었고, 특히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선교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동에서 선교사로 지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나의 큰 기쁨은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요구가 많으나 경이로운 그리고 하느님과 우정과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목말라하는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젊은이들입니다.

형제회원들... 우리는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숨김없이 말하건데, 다름을 극복하고 상호관계 안에서 형제애를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를 살찌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 교회, 그리고 살레시오의 글로벌화를 위한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양성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러합니다.

나는 젊은 사제이고, 살레시오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좀 더 나은 준비를 해서, 중동으로 돌아갈 때, 관구 공동체의 선교 사업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희망하건데, 중동의 젊은이들이 그들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발견하는데 나를 도운 것처럼, 그들이 하느님을 찾는데 내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분명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느님의 계획과 마지막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언제인지 어떻게 인지 모를 뿐입니다.

지금 자신의 선교 성소를 식별하고 있는 살레시오회원들에게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와 신뢰**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성소는 하느님의 선물이고, 우리보다 앞서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에게 살레시오 정신을 나눠준 많은 살레시오인들의 관대함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오는 살레시오회 회원인 것은 돈 보스코가 토리노에 가기위해 카스텔누오보를 떠났기 때문이고, 많은 살레시오 회원들이 토리노를 떠나 이태리 각 지방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태리를, 유럽을, 그리고 자신의 조국을 떠나 온 세상에서 살레시오 카리스마를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거저 받은 많은 것들에 비한다면, 너무 작은 것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신뢰**를 가지고 당신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있음을 느낀다면... 필요한 만큼 기도하고 식별하십시오... 그다음에 “십자가의 힘”과 “하느님 계획의 아름다움”을 의심 없이 믿으십시오.

알렉산드로 호세.래온 맨도사  
베네수엘라 출신 중동의 선교사.

아메리카 대륙을 위해: 평신도 선교 봉사자와 만민을 위한 선교성소를 위해



살레시오 선교 지향

에쿠아도르에서 성공한 살레시오 선교 자원 봉사단이 아메리카 대륙의 모든 살레시오 관구에서 많은 봉헌생활 성소와 선교성소를 꽃피우도록..

2011년 살레시오 선교의 날을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주제로 지냅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여러 나라에서 4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살레시오 선교 자원 봉사단의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어린 선교사들로 시작하여 중장년예 이르는 선교 단체들이 오랜 기간 동안 선교 자원 봉사를 해왔습니다. 이를 2011 살레시오 선교의 날에 사용할 Video를 통해 소개합니다 (에쿠아도르, 브라질, 멕시코, 미국의 서부)

